

# 세계는 분명한 질서에 의해서 돌아간단다

##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9)

시간이 흐르고 있기는 한 걸까. 아니, 아예 멈춰버렸을 지도 모른다. 무니는 멍한 얼굴로 노인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와 '왜', 이 두 질문만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하지만 정작 그 둘 중에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뱉어낼 수 없었다.

"처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조금 혼란스러웠다."

결국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노인이었다. "아직 이 세계가 수명을 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음 세상이 벌써 시작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 의문을 품고 궁리하는 중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다음 세계'가 점점 더 그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분명 무엇인가 어긋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분명 아주 미세한 균열이라 찾아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못 찾았어?"  
질문하는 무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노인은 그런 소년의 얼굴을 새삼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 결국은 찾았지."  
"뭐였는데?"

무니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막상 노인이 그 질문에 대답 하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를 가로저으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게 뭐지 전혀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정말 궁금한 건 그런 엄청난 것, 대단해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야! 도대체 나를 여기에 왜 데려온 거야? 내가 그 이야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야. 나는 지금 이 세계고, 다음 세계고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내 의지로 이곳에 온 거라고 말했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화가 나는 느낌이 들었다. 무니는 씩씩 가쁜 숨을 내쉬며 노인을 노려봤다.

"내가 말했잖니? 너는 네 마음의 소리를 따라 여기에 오게 된 거라고 말이야. 처음에 네 손을 잡았을 때, 널 이리로 데리고 올 의도는 전혀 없었던단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다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렴. 네 마음의 소리가 무엇이었던지 떠올리지만 한다면, 너는 언제든 그 세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걸 말이야."

무니는 턱씩 주저앉았다. 그림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하던 아상티가 위로하듯 곁으로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다. 갑자기 칸타카 생각이 나며 친구들이 그리워졌다. 무니는 무릎에 머리를 묻고 말았다. 그러자 노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을 걸어왔다.

"너는 내가 찾은 실마리가 무엇인지 전혀 궁금하지 않은 게냐?"

무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실마리가 네가 왜 하필이면 이런 장면 속에 떨어졌는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 일리 있는 말이었다. "궁금하다고 하면 알려줄 거야?"

무니가 자신 없는 말투로 물었다.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나 싶었다. 마찬가지로 이 만큼 간절히 대답을 원했던 기억 역시 없었다.

"알려줄 거냐고?"

대답 없이 자신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노인에게 무니는 재차 물었다. 노인의 입가에서 잠시 사라졌던 미소가 다시 피어올랐다.

"알고 싶다면 알려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알고 싶어, 알고 싶다고!"

"그 실마리는... 바로 너란다."

노인의 그 말에 무니는 뒹겨 나오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실마리가 나라니?"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되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바로 너. 전생이 없는 소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결국은 찾아냈지."

"그, 그건 또 무슨? 전생이 없단니?"

무니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전생이 없는 인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었지?"

노인은 낮이 나가있는 무니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들을 일일이 세세하게 되짚어보지는 않는단다. 간혹 흥미로운 것들을 떠올리는 정도지.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인간들이 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나? 내 기억의 양을 책으로 치자면, 끝세다. 수메루산 보다도 높지 않을까 싶구나. 그러니 책장을 넘기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지. 다행히 내가 비교적 최근의 기억부터 훑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늦게 만났을 지도 몰라."

노인은 말을 멈추고 잠시 뭔가를 생각하



삽화 김홍인

는 표정을 지었다. "기억의 저 구석구석에서 전생이 없는 존재인 너를 발견했을 때, 내 역시 내 눈의 심했다. 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 없이 오로지 탄생만이 존재하는 아이였으니까 말이야. 사트라 카르만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세계는 분명한 질서에 의해서 돌아간단다. 너무나 가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과도 같지만, 무릇 모든 생명들은 그 실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야. 인간들은 그걸 윤회라고도 표현하더구나. 전생의 흔적을 더듬어 현재를 살아가고, 그 흔적을 따라 가다보면 미래를 만나게 되는 이치지. 그러니 적어도

인간은 그 실을 손에서 놓을 수도, 실 자체를 끊어버릴 수도 없어. 그런데 그런 세계에 내가 갑자기 나타난 거란다. 아예 실을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인간이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너의 탄생 자체가 질서를 깨뜨린 것이고, 세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는 뜻이야."

무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내가 세상의 질서를 해쳤다고?'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는 그런 어떤 존재였던 말인가. 엄마는 노인이 말했던 대로 실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나고, 죽고, 또 어디선가 다시 태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을 느끼게 했던 건 자신과 이름이 같았다는 형의 빈자리였다.

"내게는 형이 있었어. 아니, 있었다고 들었지."

무니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그 형도 나와 같았어? 그러니까..."

어째서인지 다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전생이 없는 존재였나고?"

노인이 그의 의문을 대신 말해주자, 무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네 형은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단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육체만이 두 사람으로 분리되었을 뿐, 처음부터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하나 내가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그 뿐이야."

무니는 자신이 태어나던 날을 떠올렸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엄마와 무니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이웃, 그리고 자신에게 웃을 임해주었던 유리 영감까지. 지금 생각해도, 모든 일들이 이상했다. 무니는 야기였던 적이 없었다. 엄마는 자신을 낳자마자 말을 잃었고,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무니 모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편, 더 이상 가까워지는 것은 꺼려했다. 특히 촌장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다. 그런 까닭으로 무니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싫었던 건 아니었다. 그들이 왜 자신을 꺼려하는지 알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애썼다. '그래, 난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무서웠어.' 가끔 마을이 불에 타 조리다 사라져버린 것이 자신 때문인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그때마다 난다가 위로해 주었지만, 친구의 눈빛에서 그 생각에 대한 부정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래, 나 때문에 세상이 어긋났다고 치자. 그래서 이렇게 때 안이게 새로운 세상도 생겼겠지.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데?"

무니는 어지러운 생각과 알 수 없는 슬픔을 마음 속 저편에 밀어두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질문했다.

"한 세계의 소멸은 다른 세계의 창조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지. 진정한 의미의 소멸이란 모든 것이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 말하자면 그들을 없이 완전히 연소된 상태거든. 아직 연소될 수 있는 상태로 무르익지 않은 세계가 소멸된다면, 또 다른 세계의 창조가 완전한 무로부터 시작하지 못하게 돼."

##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특별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니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희망하는 마음으로 2012년 3월 완공예정을 앞두고 달마동(33세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흥성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어,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소 재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임야번지 산 193-1)
- 세대수 33세대 : 평형(10,12,13,21,23평)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원
- 시설 : 태양열난방 완비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중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 완공예정일 : 2012년 3월

###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지 휴정 합장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

## 사찰(금)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웅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제 (평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등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양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함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웅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금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 사찰 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조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